

# 위스키의 본고장에서 양조학을 배우다



**정성운의**  
K-위스키 발전을 위한 제안

15세기부터 전해져 오는 생명의 물, 위스키. 영국 스코틀랜드에 합법적인 위스키 증류소가 설립된 것은 1824년으로 알려진다. 2024년을 기해 200년이 되는 긴 세월은 스코틀랜드가 쌓은 위스키 제조의 명성을 증명하는 셈이다.

위스키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술과 그 생산자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 방식의 현대화, 표준화를 이뤄냈다. 스코틀랜드 역시 오늘날의 명성을 얻기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위스키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심에는 헤리엇와트대학이 있다. 헤리엇와트대학은 2018년 International University of the Year(올해의 세계화 대학)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양조·증류 과정은 에디버러 캠퍼스 혹은 온라인 원격 수업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학부 과정은 4년, 석사 과정은 논문 작성을 포함해 1년간 진행된다.

헤리엇 와트 양조·증류 과정을 마친 줄

업생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자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여러 양조장과 증류소 또한 헤리엇와트 출신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다양한 주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골든블루 마스터블랜드 프로젝트 장학생들을 포함해 오미자와인과 프리미엄 증류주를 생산하는 이종기 제이엘 대표, 한국식품연구원의 김태완 박사 등이 헤리엇 와트에서 양조·증류 과정을 수료했다.

헤리엇 와트 양조·증류 석사 과정에서는 양조용 곡물 발아, 담금 및 발효, 맥주 숙성 및 제품화, 증류와 위스키 숙성 등 다양한 과정이 필수 과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식품공학 및 미생물학, 경영자 과정 등의 선택 과목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실습과 견학,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주류 산업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필자 또한 헤리엇와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글렌모렌지증류소의 연구원이자 헤리엇와트 내에서 위스키를 전공하는 지도 교수의 주도 아래 발효를 끝낸 맥아

밀술(wash)을 두 번 증류해 숙성 직전의 위스키 원액을 만들었다. 발효와 증류 과정에서 휘발성 향미 성분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무척 송고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헤리엇와트에서의 배움은 귀국 후 국내 맥주 양조장 근무에 실속 있게 활용되었다. 수제맥주 양조집장으로서 강렬한 흡향기와 탁한 외관으로 유명한 'Hazy(헤이지) IPA', 은은한 바나나 향기가 일품인 '휘트 에일(Wheat Ale)' 등을 꾸준히 생산하며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모든 순간 양조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내 위스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조 및 증류 관련 학문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위스키 생산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구 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멀리 혹은 가까이 있을지 모르, 한국 위스키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날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꽃 헤리엇와트대학교 양조증류학 석사, 현 골든블루 마케팅팀

# 말 많고 탈 많은 '세금둥둥' 한강버스



**기지 수집**  
김현정  
(정책사회부)

'세금둥둥버스' 한강버스 명칭 공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한강버스는 마곡·잠실 내 주요 거점을 선박으로 잇는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선박 8척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한다는 목표다. 허나 한강버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좋지 않다. 시가 '서울의 물길을 여는 새로운 교통 혁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달리, 대중교통으로서의 매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 이용시 75분이, 급행 노

선은 54분이 소요된다. 급행을 타도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와 4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금은 약 1.7배 더 비싸다. 게다가 운항 간격도 15~30분으로 긴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용으로 이용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한강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해 시간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나빠 시내버스에도 밀린다. 이용 실적이 저조해 폐지 수순을 밟는 한강 수상택시와 14년 만에 운항을 끝내는 한강 유람선(아라호)의 선행 사례를 증명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영실 서울시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신생 업체에 한강버스 건조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가덕중공업과 선박 6척 납품 계약을 맺은 날짜는 올 3월 28일인

데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지난 4월 5일인 것을 문제 삼았다. 시가 올 4월에야 직원 등록을 한 회사와 약 178억원 상당의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체 조선소도,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도 없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레고 조립하듯 선박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강버스 업체 선정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7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건조 계약 이전인 지난 3월 27일 예인선 2척(296t급, 1척당 67억원)을, 올 4월 26일 해양계기물수거선 1척(190t급, 48억원)을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전자는 시가 가덕중공업을 선박 건조 업체로 선정하기 바로 전날, 후자는 계약 체결 후 한달 뒤 이뤄진 일이라 서울시의 해명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hjk1@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 10월 8일 (음 9월 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티끌을 모으면 티끌에 불과하듯 뒤늦은 투자로 돈은 남아나지 않을 것. **48년생** 토사구팽(兔死狗烹)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60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사연은 있다. **72년생** 음주보다는 책을. **84년생** 가족의 방문으로 즐거운 날.
- 37년생**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행복함 미래는 없다. **49년생** 돼지띠와의 거리가 있다면 성사가 길. **61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 것 내일을 대비해. **73년생**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모습. **85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
- 38년생** 내가 싫어한다고 남들도 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50년생** 주말이라고 아침부터 업무를 가버어 여기저기 마라. **62년생** 받았으면 베풀어라. **74년생** 삶의 기본이 흔들릴 정도 모험은 위기를 부른다. **86년생** 쉬우수록 한 번 더 숙지하라.
- 39년생**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3년생** 세월이 흘러도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한다. **75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87년생** 임대아파트가 좋은 곳에 당첨.
- 40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52년생** 도시화 때문에 풍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64년생** 지나친 관심은 연인을 지쳐 떠나게 한다. **76년생** 진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니 오늘침묵. **88년생** 벗이 찾아와 기쁘다.
- 41년생** 미지의 전원주택을 그리워하지 마라 행복 끝 고생시작이 된다. **53년생** 의외로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다. **65년생**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77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낌. **89년생** 이를 수 없는 사랑이다.
- 42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건강이 염려된다. **54년생** 도난 실물수가 있으니 남의 탓하지 말고 사람 많은 곳은 주의. **66년생** 남의 송사에 관여하면 공 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 **78년생**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계약을 성사. **90년생** 웬만하면 비울 것.
- 43년생** 자식의 결혼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라. **55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 **67년생** 노력한 만큼 소득이 창출된다. **79년생** 은행에 적금을 들어서 한 단계씩 모아가 보라. **91년생**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 44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니 서두르지 마라. **56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 **68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80년생** 뉘니 뉘니 해도 빠른 정보회복이 중요. **92년생** 오늘 물물교환은 하지 마라.
- 45년생** 작은 약속도 허투루 여기지 마라. **57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을 것. **69년생** 수고로움이 많아서 돌아온 재물도 만족하다. **81년생**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협조자를 구하라. **93년생** 옛그제 같았던 시간이 아쉽다.
- 46년생** 일을 하게 되니 행운이 따른다. **58년생** 사람에게 격려는 성과로 돌아온다. **70년생**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다. **82년생** 역(易)의 예측은 우주와 인간 해석에 대한 정보해석의 집약체. **94년생** 정든 사람과 이별이 아쉽다.
- 47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59년생**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음. **71년생** 검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83년생** 종로에서 빵 맛과 얇은 한강에다 분풀이할 듯. **95년생** 월급 타서 실비보험을 꼭 들도록.

# 김상회의 四季 화무십일홍

운세와 욕심은 상관관계가 깊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인생의 보편적 진리라고 연결된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인데 영원히 가는 권력이나 부귀영화는 없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사람의 욕심이 운세를 이기지 못하고 화무십일홍이 되고 마는 걸 자주 본다.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화무십일홍처럼 천당과 지옥을 오간 사람이 있다. 대학 졸업 후 투자금융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돈의 흐름에 눈 뜨고 재물이 궁극하다며 상담을 오곤 했다.

사주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재성이 있고 일간도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재물을 끌어오는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 걱정되는 건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어서 운세를 잘못 만나면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게 눈에 보였다. 모든 사람이 힘든 지경에 빠졌던 IMF 외환위기 때 김운을 만나면서 그의 대운이 강한 흐름을 탔다. 남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돈을 뺄 때 그는 주식에 베팅해서 거금을 벌었다. 재운은 그 뒤로도 이어져서 운세를 올라타고 지속적 수익을 냈다. 재산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고만장으로 최고급 아파트를 사들이고 최고급 외제 차를 굴리면서 돈을 평평 써댔다. 그리고 화무십일홍의 시기가 왔다. 운세가 쇠하는 때가 온 것이다.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는 시점이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지만, 자만심에 취한 사람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 없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다시 큰 베팅을 했고 재산 대부분을 날렸다. 지옥을 맞본 것이다. 노년에 들어가는 나이가 된 그는 이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운세의 흐름을 꼭 살핀다. 사람의 욕심은 운세의 조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화무십일홍은 보편적 진리다. 흥망성쇠의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알고 일을 도모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9	8	8	2	9	1	6
6	8	1	7	9	2	2	8	9
8	9	2	6	1	9	7	8	2
2	1	6	8	2	9	8	9	7
9	9	7	2	8	1	6	2	8
2	8	8	9	6	7	1	2	9
1	2	2	9	9	6	8	7	8
9	6	8	1	7	8	2	9	2
8	7	9	2	2	8	9	6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2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